



사진 1



사진 2



사진 3



사진 4

촛대[燭臺] - 일상용 촛대 ①

원래 초는 기름보다 나중에 쓰였다. 특히 밀초(蜜燭)는 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 까다로워 왕실과 사찰, 양반 등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었으며, 일반 서민들은 혼례나 제사, 또는 특별한 신불의식(神佛儀式)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. 초의 사용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,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 국가 종교였던 불교 의식에서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다. 초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일상 조명용 보다는 주로 의·예식용으로 사용되었고, 부와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.

조선시대로 접어들면 산업경제가 발달되면서 초 소비도 점차 늘어났다. 의·예식 중심에서 일상용으로 그 사용처가 확대되었고, 더불어 촛대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가 발생하였다. 의·예식용 촛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후리[火扇]가 달리고, 기능적으로 실용성을 높인 등·축 겸용 촛대가 나타났으며, 정교하고 세련된 은상감(銀象嵌)을 하는 등 조형의장(造形意匠)이 뛰어난 제품들이 만들어졌다. 물론 광명대(光明臺)의 경우처럼, 등·축 겸용 촛대는 고려 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. 청동 재질의 귀족적이면서 장엄한 형태로 조선 중·후기의 그것과는 크기와 질감,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. 조선의 것은 무쇠나 놋쇠, 목재 등으로 만들어졌으며,



사진 5

- 사진1) 청동촛대[靑銅燭臺]// 고려시대// 높이 38cm, 지름 29.1cm// 국립청주박물관
- 사진2) 동제촛대[銅製燭臺]-광명대(光明臺)// 고려시대// 높이 42.2cm, 지름 10.1cm// 국립청주박물관
- 사진3) 청동쌍사자촛대[靑銅雙獅子燭臺]-광명대(光明臺)// 고려시대// 높이 30.8cm// 경희대학교박물관
- 사진4) 청동촛대[靑銅燭臺]-광명대(光明臺)// 고려시대// 높이 39.5cm, 지름 18cm// 받침지름 19.5cm//경희대학교박물관
- 사진5) 철제등경겸용촛대[鐵製燈檠兼用燭臺]// 조선시대// 높이 52cm, 바닥지름 16.5cm// 덕성여대박물관



사진 6



사진 7



사진 8



사진 9

기능적이고 실용성을 살린 소박한 형태가 많다. 고려시대의 광명대는 국가나 사찰의 중요한 행사에 주로 의식용 촛대로 쓰였고, 초 역시 오승포(五昇布; 다섯 새의 거친 삼베)에 납(蠟)을 발라 1척이 넘는 홍대초[紅大燭]를 만들어 사용하였다. 홍대초는 충렬왕 때 희종(熙宗)의 아들 경원공 장례 시 사용 기록이 있고, 충선왕대에는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금령이 내려진 바 있다. 《조선왕조실록》에 따르면, 태종(太宗)은 전국의 길례(吉禮)와 흉례(凶禮) 때 홍대초 사용을 금하고, 대신 햇불(松炬)을 쓰도록 명한 내용이 전한다.

조선시대 일상용 촛대에는 여러 가지 길상(吉祥)의 의미를 담은 식물이나 동물 문양을 새겨 넣거나 좋은 글귀를 써 넣음으로써 염원이나 기원을 성취하려는 기복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. KEA



사진 10

사진 및 자료 / 국립민속박물관,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청주박물관, 경희대학교박물관, 덕성여대박물관, 조선유적유물도감

글 /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
사진6) 백자해태반침촛대[白磁海駝座燭臺]// 조선후기// 높이 20.5cm// 조선유적유물도감

사진7) 목제연꽃받침촛대[木製蓮花臺座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6.5cm, 높이 56.5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8) 놋쇠죽절기둥촛대[鑄製竹節柱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5cm, 높이 48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9) 철제은상감촛대[鑄製銀象嵌燭臺]// 조선시대// 밑지름 22.9cm, 높이 87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10) 기방쟁웅(妓房爭雄) 풍속도(風俗圖) 부분// 조선시대// 국립중앙박물관